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변인 중 하나로 일몰입(work-flow)을 들 수 있다. 일몰입은 Csikszentmihalyi(1975)가 제안한 몰입(flow)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작업 장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서 깊이 몰두하여 외부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활동 그 자체로 즐거움이 충족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은 일에 몰입함으로써 작업 장면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직장인들은 일에 몰입할수록 과업수행이 좋아지고 이직 의도가 감소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끼는 등, 일몰입이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수, 유태용, 2007).

일몰입정도가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8.7%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1). 특히 ‘임금이나 임금 외 금품지급’(41.4%), ‘부서배치’(19.8%), ‘승진과 관련된 불평등’(18.7%), ‘모집/채용하는 과정’(7.4%) 등에서 남녀 차별이 여전히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1). 이와 같은 성차별적 근무환경은 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박지현, 탁진국, 2008).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 여성들이 차별적 근무환경에서 직무

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에 몰입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 통계 연보」와 「여성 사회지표 개발」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36.2%만이 직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정향, 2007). 여성 직장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성 직장인들의 기여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직장내에서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 내적 및 외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직장인의 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mechanism)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화이론(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은 여성 직장인의 일몰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그림 1 참조). 대상화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체가 타인으로부터 관찰 당하고 평가 당하는 등의 성적 응시, 성희롱 및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성적 접근 등을 경험할 수가 있다. 대상화이론에서는 성적 인 평가와 접근등을 경험하는 것을 성적 대상화 경험이라 지칭한다. 반복적으로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자기 대상화’(self-objectification)라고 하며, 자기 대상화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거나 또는 신체 외향에 대한 지나친 감시로 나타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자기 대상화를 통해 여성은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는 줄어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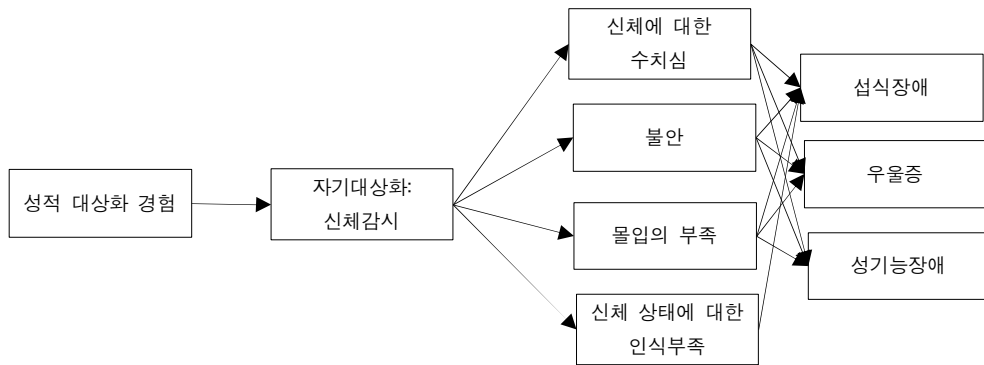


그림 1. 대상화이론에서의 변인 간 인과적 관계(Fredrickson & Roberts, 1997)

된다. 이렇듯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살피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 또한 배고픔, 성적 욕구 등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작업에 몰입하기 힘들어진다. 대상화이론에서는 신체적 수치심, 불안, 몰입의 결여, 내적 신체 인식의 부족 등이 섭식행동장애, 우울, 성적(性的) 불만족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성적 대상화 경험은 자기 대상화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몰입을 방해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대상화이론에서는 Csikzentmihalyi(1990)의 몰입(flow)이론을 토대로 성적대상화를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한 여성들이 왜 몰입을 경험하기 어려워하는지를 설명한다. Csikzentmihalyi(1990)에 따르면 개인은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머릿속에 표상함으로써 의식(consciousness)을 형성한다. Csikzentmihalyi는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개인의 목표에 맞춰 선택해서 의식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활동 및 작업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작업이나 활동의 목표와 관련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표상하여 결과적으로 활동 및 작업에 몰입하기 어렵다. 대상화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적인 시선과 접근에 노출되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따라서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 그만큼 활동이나 작업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신체감시가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leaf, 2005; Szymanski & Henning, 2007; Tiggemann & Kuring, 2004; Tiggemann & Slater, 2001).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 대상화 경험을 변인으로 포함시켜 여성의 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적 대상화 경험을 자기대상화(신체감시)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고 직장 여성의 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

해보았다.

대상화이론에서는 여성이 성적 접근과 시선 등 성적 대상화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외모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감시하게 된다고 가정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Morry와 Staska(2001), Moradi 등(2005)은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거나(Calogero, Davis, & Thompson, 2005; Daniel & Bridges, 2010)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 Mazzeo, 2009; Moradi et al., 2005; Morry & Staska, 2001). 한편 국내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에서는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몰입의 맥락에서 성적 대상화경험, 내면화 및 신체감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작업이나 활동에 몰입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 세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통합적으

로 검증한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지만,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내면화는 신체감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시연 등, 2010; Moradi et al., 2005), 신체감시는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leaf, 2005; Szymanski & Henning, 2007; Tiggemann & Kuring, 2004; Tiggemann & Slater,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대상화이론과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의 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상화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화이론이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일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자 및 상담자들에게는 일몰입을 경험하기 힘들어하는 직장 여성들을 돕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를 매개로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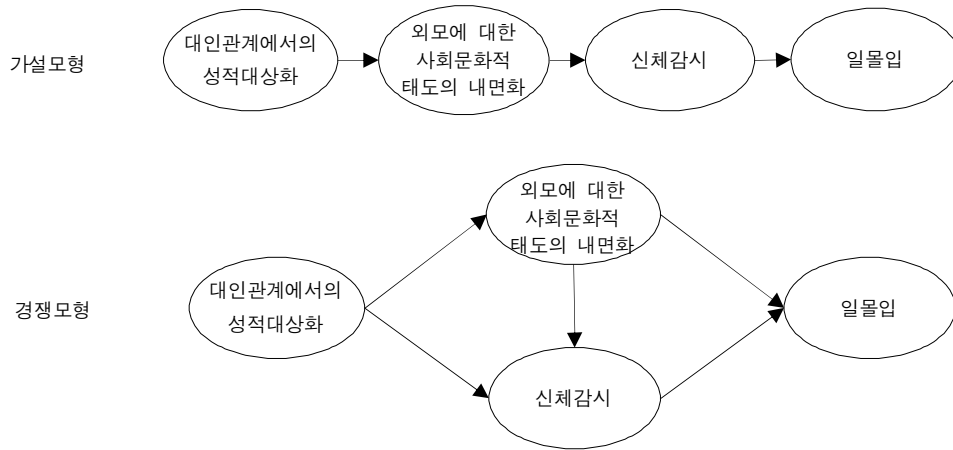


그림 2. 가설 모형 및 경쟁 모형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구조모형(가설모형,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김시연 등, 2010; Kozee et al., 2007; Mitchell & Mazzeo, 2009; Morry & Staska, 2001; Moradi, Dirks, & Matteson, 2005)를 토대로 가설 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성적 대상화 경험에서 내면화로 가는 직접경로, 내면화에서 신체감시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김시연 등(2007)의 연구를 토대로 가설모형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에서 신체 감시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상화경험과 신체감시 간 직접경로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점(Mitchell & Mazzeo, 2009; Moradi 등, 2005; Morry & Staska, 2001)과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모형에서는 이 두 변인 간에 직접경로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결과(Greenleaf, 2005; Szymanski & Henning, 2007; Tiggemann & Kuring, 2004; Tiggemann & Slater, 2001)를 토대로 가설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신체감시에서 몰입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면화와 일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설모형에서는 이들 간의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반면, Moradi 등(2005)의 연구에서 내면화는 신체수치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일몰입과 신체수치심 모두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대상화이론을 토대로 경쟁모형에서는 내면화에서 일몰입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직장 여성은 총 260명이었으며, 서울 경기 지역 8개 직장(예: 전자, 항공, 관공서, 은행 등)에서 설문이 실시되었다.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252명의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0.12세($SD = 7.22$)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직급은 사원 198명(78.6%), 대리 29명(11.5%), 과장 11명(4.4%), 부장 이상 5명(2.0%) 순으로 사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100%인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은 87명(47.6%), 50~75%는 26명(10.4%), 25~50%는 65명(28.1%), 0~25%는 53명(13.9%)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 질량 지수에 따라 저체중(15.62-19.98)이 162명(64.3%), 보통(20.03-24.52) 83명(32.9%), 과체중(25.54-29.03) 6명(2.4%), 비만(31.25) 1명(0.4%)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9.88($SD = 2.17$)로 나타나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저체중임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ozee 등(2007)이 개발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김시연 등(2010)이 역번역기법을 활용하여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SOS는 신체 평가와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 등 2가지 하위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신체평가(Body Evaluation)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응시하거나 평가하는 경험을 묻는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

(Unwanted Explicit Sexual Advances)은 실제로 성적인 행동이나 접근을 경험한 것을 묻는 4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에게 모멸적인 성적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ozee 등(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요인이 추출되었다. Kozee 등의 연구(2007)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91로 산출되었고 3주간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산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 하위요인인 신체 평가는 .89,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은 .83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h 등(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 중 하위요인인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란 개인이 얼마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지를 의미한다. 내면화 척도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 완전히 동의함)로 측정한다. 점수가 클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한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면화는 신체 불만족(Griffiths et al., 2000), 비정상적 식이 태도(Griffiths et al., 1999), 절제된 식이 태도(Griffiths et al., 2000), 신체상에 대한 지각(Morry & Staska, 2001),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에 증상(이상선 & 오경자, 2003)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내면화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부터 .90까지로 산출되었다(Heinberg et al., 1995; Moradi & Rottenstein, 2007; Morry & Staska, 2001).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신체감시

본 연구에서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신체감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를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의 하위 척도인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사용했다. 신체에 대한 감시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관찰하고 신경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 쓴다.”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 신체감시 척도는 신체자존감과는 부적 상관, 섭식행동 장애와는 정적 상관, 공적 자기의식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감시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감시가 외모 관리 행동 중 꾸밈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di 등(2005)의 연구에서 신체감시의 내적일치도는 .82였고, 김완

석 등(2007)의 연구에서는 .83,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75,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일몰입

본 연구에서는 Tiggemann과 Kuring(2005)의 제안에 따라 Csikzentmihalyi(1990)의 몰입 특성 중 당면과제의 집중,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등 3가지 특성을 일몰입으로 정의하였다. Tiggemann과 Kuring은 개인이 자신이 아닌 활동이나 작업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 세 가지 특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몰입의 9가지 특성 중 이 세 가지가 대상화 경험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근수와 유태용(2007)이 Csikzentmihalyi(1990)의 몰입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형 일몰입 척도 중 “당면과제의 집중”,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등 3가지 하위 척도들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일몰입 정도를 측정하였다. 세 하위 척도는 각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항상 당면과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나는 주어진 작업에 완전 몰입하고 있다.” 등이 있다. 박근수와 유태용의 연구에서 일몰입은 과업 수행, 직무 만족, 이직의도, 정신건강, 생애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수와 유태용의 연구에서 전체 일몰입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5, 시간감각 왜곡은 .84, 당면과제의 집중은 .91, 자의식 상실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당면과제의 집중 .92, 자의식 상실 .87, 시간감각 왜곡 .9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내면화, 신체감시 두 개의 변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변인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후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것으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252$)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연령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Augustus-Horvath & Tlyka, 2009; Moradi & Rottenstein, 2007), 관측변수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BMI와 신체감시($r = -.21, p < .01$) 연령과 내면화($r = -.41, p < .001$)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MI

와 연령을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모형검증을 위한 기술 통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성적 대상화 경험의 하위 요인인 신체 평가와 노골적인 성적 접근, 내면화 꾸러미 1, 2, 3, 신체감시 꾸러미 1, 2, 3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몰입 꾸러미 1, 2, 3은 성적 대상화 경험 하위요인인 신체 평가와 노골적인 성적 접근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고 내면화 꾸러미 2와 신체감시 꾸러미 1, 2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53, N = 252) = 81.775, p = .007$; CFI = .98; TLI = .97, RMSEA = .047(90% 신뢰구간 = .025-.066).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71에서 .99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_s < .001$).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측정변인 간 상관 (N=252)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79**	-									
3	.21**	.13**	-								
4	.25**	.17**	.77**	-							
5	.20**	.13**	.77**	.70**	-						
6	.13*	.09	.38**	.44**	.40**	-					
7	.12	.07	.32**	.40**	.30**	.57**	-				
8	.13*	.11	.30**	.37**	.33**	.60**	.53**	-			
9	-.09	-.02	-.10	-.15*	-.11	-.12	-.18**	-.08	-		
10	-.04	.01	-.07	-.15*	-.11	-.21**	-.22**	-.12	.85**	-	
11	-.02	-.03	-.01	-.05	-.02	-.00	-.11	.05	.70**	.66**	-
M	2.00	1.7	3.02	3.16	3.36	4.35	4.29	4.85	3.29	3.19	3.31
SD	0.61	0.65	0.99	0.94	1.16	0.94	0.99	1.09	0.60	0.59	0.66
왜도	0.27	1.19	-0.04	-0.12	-0.49	-0.23	-0.16	-0.38	0.27	0.55	-0.07
첨도	-0.56	0.95	-0.54	-0.44	-0.62	0.67	0.26	-0.09	1.47	1.16	0.28

따라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조모형 검증

대상화이론과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2, N = 252) = 103.131, p = .001$; CFI = .98; TLI = .97, RMSEA = .051(90% 신뢰구간 = .033-.069). 경쟁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0, N = 252) = 102.744, p = .000$; CFI = .98; TLI

= .97, RMSEA = .053(90% 신뢰구간 = .035-.070).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2, N = 252) = .387, p > .05$. 따라서 경쟁모형에서 3개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이 적합도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가설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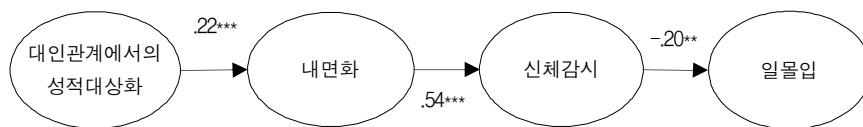


그림 3. 가설 모형 (N=252)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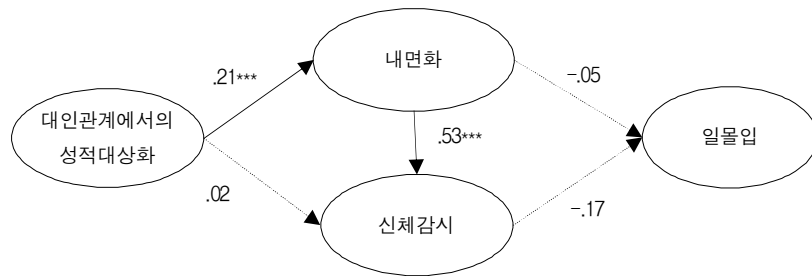


그림 4. 경쟁 모형 (N=252) *** $p < .001$.

는 신체감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감시는 일몰입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252)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는 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p < .01$).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는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를 매개로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통해 일몰입에 간접적으로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5$). 내면화가 일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신체감시가 내면화와 일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는 신

표 2.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성적 대상화 → 내면화	.22**		.22**
성적 대상화 → 신체감시		.12**(.05, .19)	.12**
성적 대상화 → 일몰입		-.02*(-.05, -.004)	-.02*
내면화 → 신체감시	.54**		.54**
내면화 → 일몰입		-.11*(-.20, -.02)	-.11*
신체감시 → 일몰입	-.20*		-.20*

주. N=252. * $p < .05$. ** $p < .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는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통해 일몰입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5$). 이는 내면화와 신체감시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거나 경험적으로 확인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대상화이론 및 선행 연구, 상담실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김시연 등(2010), Kozee 등(2007), Moradi 등(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직장여성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 받거나 노골적인 성적 접근을 경험할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살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에 내면화를 포함시키지 않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 관계를 살핀 Augustus-

Horvath와 Tylka(2009)의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변량의 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화를 매개변인으로 포함시킨 본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변량의 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대상화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둘째,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통해 일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직장여성들이 사회에서 이상화하는 외모 상을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업 또는 활동에 몰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sikzentmihalyi(1990)의 몰입이론과 대상화이론을 토대로 수행된 선행연구, 즉 신체감시가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reenleaf, 2005; Tiggemann & Kuring, 2004; Tiggemann & Slater, 2001)와 유사한 것이다. Csikzentmihalyi의 몰입이론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초점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내면화와 신체감시 행동은 결과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일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상화이론에서 가정하는 대상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가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일몰입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함을 의미한다. 관련해서, 본 연구결과는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몰입 및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한주원(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8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감소하고 조직 몰입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한주원의 연구결과에 적용하면, 대표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 중 하나인 성희롱에 노출될 경우 여성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면화된 미적 기준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신경 쓰고 감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결국 여성이 일에 몰입하고 만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상화이론 및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우선, 현재까지 대상화이론을 적용해서 직장여성의 일몰입을 설명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대상화이론의 적용 범위가 직장 여성의 일몰입으로 확장되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직장여성의 일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기업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쇠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Szymanski와 Carr(2011)는 교육 뿐 아니라 집단상담을 통해 직장 내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상담자는 집단상담 회기 중에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바

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상황을 설정한 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각자 이야기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구성원들은 여성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Szymanski와 Carr는 “The Police Rape Training Video”(Foubert, 2005)과 같이 성적 강요 또는 강간피해를 당한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상담 구성원들의 성적 대상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업상담자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기업내 분위기를 쇠신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일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내면화와 신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직장여성을 상담할 경우 내면화 과정과 신체감시에 개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외모와 비슷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내면화된 이상적 외모와 비교하고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살피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신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직장 여성 내담자가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일에 몰입하는 것을 힘들어 할 경우,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신체감시 활동 및 일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가 이상화하는 여성의 외모와 비슷해져야 한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수정하는데 개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때 내담자의 부정적 신체상(body image)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상담목표로 하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박수정 & 손정락, 2002; 배진희, 1999; 황효정 & 김교현, 1999; Dworkin & Kerr, 1987; Fisher & Thompson, 1994). 즉, 몰입하기 힘들어하는 직장 여성을 상담할 경우 특히 성적 대상화 경험을 했을 것으로 가정될 때에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 신념(예,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으로 마른 외모가 되어야한다”)을 수정하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내면화된 이상적인 신체상이 수정될 경우, 신체감시 행동은 줄어들고 결국 직무몰입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연구참여자를 표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장 여성들의 업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근수와 유태용(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업무 특성과 업무 환경이 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율적인 직무 환경, 명확한 목표 설정, 즉각적인 피드백과 같은 업무 환경에 놓여있는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보다 더 일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특성이 일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각된 도전과 기술의 균형’은 Csikzentmihalyi(1990)가 제시한 몰입 특성 중 하나로, 개인은 지각하는 도전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일치할 때 몰입을 경험한다. 반면, 지각된 도전과 기술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지루해하고 몰입하지 못한다(Csikzentmihalyi, 1990). 따라서 도전과 기술 수준의 일치도에 따라 성적 대상화 경험과 몰입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몰입과 관련된 업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을 조절변인(moderator variable)으로 채택하여 성적대상화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미디어리서치
- 김성훈 (2006).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국제노동브리프, 4(6), 1-140.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창대 (2002). 몰입(Flow) 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10(1), 5-30.
- 박근수, 유태용 (2007). 한국형 일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2), 81-112.

- 박근수, 유태용 (2007). 일몰입의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3), 219-251.
- 박수정, 손정탁 (2002). 인지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35-351.
- 박지현, 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조직 내 성차별 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2), 245-263.
- 배진희 (1999).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신철우, 진선영 (2004). 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한국경영학회*, 12, 2783-2803.
- 유영달 (2002).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몰입감(Flow) 모델의 이론적 시사점. *청소년상담연구*, 10, 1-34.
- 윤정향 (2007).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태와 정책적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편 (2006). *여성통계연보*.
- 한주원 (2006). 직장 내 성희롱이 조직유효성 및 개인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15, 29-48.
- 황효정, 김교현 (1999). 인지-행동 프로그램과 명상 훈련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신체상 불만족과 폭식의 개선 및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140-154.
- Augustus-Horvath, C. L., & Tylka, T. L. (2009).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predicts disordered eating: Does women's age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253-265.
- Calogero, R. M. (2004).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The effect of the male gaze on appearance concerns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16-21.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2, 43-50.
- Cash, T. E., & Grant, J. R. (1995). The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dy-image disturbance. In V. Van Hasselt & M. Hersen (Eds.), *Sourcebook of psychological treatment manuals for adult*. New York: Guilford Press.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Perennial.
- Csikszentmihalyi, M. (1982). Toward a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pp.193-2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workin, S. H., & Kerr, B. A. (1987). Comparison of interventions for women experiencing body image problem.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34, 136-140.
- Fisher, E., & Tompson, J. K. (1994). A comparative evaluation of cognitive-behavior therapy (CBT) versus exercise therapy (ET) for the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Behavioral Modification*, 18, 171-185.
-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redrickson, B. L., Roberts, T., Noll, S. M., &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69-284.
- Greenleaf, C. (2005). Self-objectification among physically active women. *Sex Roles*, 52, 51-62.
- Griffiths, R. A., Beumont, P. J., Russell, J., Schotte, D., Thornton, C., Touyz, S., & Varano, P. (1999).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in dieting disordered and nondieting disordered subjec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7, 193-203.
- Griffiths, J. A., Mallia-Blanco, R., Boesenberg, E., Ellis, C., Fischer, K., Taylor, M., & Wyndham, J. (2000). Restrained eating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and general dissatisfaction.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8, 394-402.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 81-89.
- Hill, M. S., & Fischer, A. R. (2008). Examining objectification theory lesbian and heterosexual women's experiences with sexual and self objectific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745-776.
-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818-825.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176-189.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itchell, K. S., & Mazzeo, S. E. (2009). Evalu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 384-39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0-428.
- Moradi, B., & Huang, Y. (2008). Objec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women: A decade of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 1-10.

- Women Quarterly*, 32, 377-398.
- Moradi, B., & Rottenstein, A. (2007). Objectification theory and deaf cultural identity attitudes: Roles in deaf 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78-188.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 269-279.
- Szymanski, D. M., & Carr, E. R. (2011).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Clinical implications and training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 107-126.
- Szymanski, D. M., & Henning, S. L. (2007).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depress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Sex Roles*, 56, 45-53.
- Tiggemann, M., & Kuring, J. K. (2004). The role of objectification in disordered eating and depressed moo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299-312.
- Tiggemann, M., & Lynch, J. E. (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43-253.
- Tiggema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57-64.

1차원고접수 : 2011. 10. 12.

심사통과접수: 2011. 12. 7.

최종원고접수: 2011. 12. 15.

Sexual Objectification and Work-Flow in Female Workers: The Mediating Roles of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and Body Surveillance

Keun Young Baek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On the basis of the objectification theory and extant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influence female workers' flow experience by way of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and body surveillance. Participants were 252 Korean female workers at eight regional companies in South Korea. Overall, the present findings indicate that female workers who experience more sexual objectification in interpersonal situations are more likely to internalize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and monitor their body, which leads to impede their flow experience at work. Given that the link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and work-flow was fully mediated by internalization and body surveillance,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should be focused on the two mediator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objectification theory, sexual objectification, internalization, body surveillance, work-flow, female workers*